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2021년 2월 후원미사는 21일에 봉헌합니다.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후원회원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이주사목위원회 사제, 수도자들은 후원회원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문의 / 02.924.9970 ~1

* 새로운 후원 가족을 환영합니다!

김현수 짬마님, 임태환 비오님, 임지혜 크리스티나님, 장영택 유스티노님, 임봉식 바오로님께서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11~12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28,250,000		
구 분	2021년 11월		2021년 12월	
자 동 이 체	633명	11,661,680	739명	11,189,500
지 로	29명	515,410	113명	1,087,500
CMS이체	104명	1,260,040	103명	1,261,200
이주사목위원회		687,870		586,800
합 계	766명	14,125,000	955명	14,125,000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 부 내 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 어린이집	10,4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4,0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	3,05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행사비 등	
	마고네 지역아동센터	1,0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 집	4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600,000	제전비 등	
	남미공동체	1,000,000	제전비 등	
	중국공동체	200,000	의료비 등	
	인도네시아공동체	200,000	제전비 등	
	상호문화센터	1,4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22,250,000		
	사설비	노동사목회관	6,000,000	시설유지비, 수도광열비 등
	지출 총액	28,250,000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좋은이웃

2022. 01 / 제61호

펴낸날 2022. 01. 17.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유상혁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facebook.com/seoulmigrant instagram.com/seoulmigrant

회상(이주민과 함께 했던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는 가톨릭 전례력으로, 대림시기로 시작되는 새해와 함께 우리 주님의 성탄과 공현을 맞이하였습니다. 늘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완전한 하느님의 아들이심에도 굳이 모진 수난과 십자가상의 죽음이 예정된 낮은 세상에서의 강생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아낌없는 헌신이었고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어렵고 힘없는 이들 안에서 당신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임을 깨닫습니다. 오랫동안 이주민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통적인 선물은 '어려운 이를 돕고자 하는 선한 의지'임을 셀 수 없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장소나 사람 그리고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인한 두려움은 모든 이가 가진 약함이자 서로에게 따뜻한 나눔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신적,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주민들 역시 태어나고 자란 익숙하고 편안한 모국을 떠나면서까지 낯선 타국에 오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보다 더 대접받고 유리한 특권을 확보하려는 이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곧 이웃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려는 선한 의지를 묵묵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선뜻 나누어 주시는 이주사목위원회의 후원회원분들 그리고 이주민들의 어려운 문제해결을 위해 언제라도 손을 내밀어 주시는 많은 분들의 선한 도움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주민들을 보살피고 계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이주노동자 상담실 전임자 배숙 비양카*

*오랜 기간 함께해주신 배숙(비양카)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정년퇴임을 하신 선생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언제나 이주민과 난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던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런 고민은 힘 없고 약한 이들을 만나려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그 대답은 선생님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향해 나아가 무엇인가 도우려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자라나 우리들의 공동체를 휘감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자리에 남겨주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남겨져 저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의지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자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평화가 배숙(비양카) 선생님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공동체 소식

베트남 공동체 소식*



11월 14일에는 베트남 교회 순교자들을 기리는 '성 안드레아 동락 사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 경축 이동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또한 이날 미사에는 유경춘 주교님의 주례로 9명의 이주민이 견진성사를 받는 더욱 뜻 깊은 미사였습니다. 견진성사를 받으신 모든 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 신앙이 주는 은총으로 삶의 여정 안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성 안드레아 동락 사제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같이 베트남 순교자들을 대표하는 분이십니다. 안드레아 동락 신부는 1785년 베트남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제가 된 뒤에는 베트남의 여러 지역에서 열정적으로 사목 활동을 펼쳤습니다. 베트남 교회의 박해 시기에 교회의 주요 인물이었던 안드레아 동락 신부는 관헌들의 끈질긴 추적으로 체포되어, 1839년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습니다. 1988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그를 비롯한 베트남의 순교자들을 시성하였습니다.

성탄절 미사 소식*



이주사목위원회의 각 쉼터와 국가별 공동체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 함께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필리핀 공동체는 '심방가비(Simbang Gabi)라는 성탄절 전 9일 동안 미사를 드리는 전통문화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함께 미사 드리며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고 기다렸으며 베트남 공동체는 성탄절 미사 후 베트남 전통 음식을 나눠주며 기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 쉼터와 국가별 공동체에서도 성탄미사를 함께 드리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렸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용기를 얻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지난 달 25~26일 평화방송 성탄특집 '우리 함께 살아요!'라는 주제로 베들레헴어린이집이 방영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어린이집 하루일과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원장수녀님, 담당교사, 미술치료 선생님들을 통해 이주민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어린이집에서는 기본교육과정 이외에도 미술치료, 음악활동 등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주고 있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주민 가족에게는 함께 고민하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어린이들과 가족들을 위해 힘든 순간, 기쁜 순간을 모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고 그분들의 노력에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문화, 비(非)다문화라고 구분 지어 선 긋지 말고 똑같이 어린이들을 바라보며 그런 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커 갈 수 있도록 격려, 응원,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당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2021년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190,492,760	
지출내역			
항목	지출	세부내역	
단체찬조비	베들레헴어린이집	62,4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24,0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가정폭력 이주여성 시설	22,637,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누수공사비 등
	마고네지역이동센터	2,4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 집	1,6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등
	몽골공동체	3,600,000	제전비 등
	남미공동체	6,000,000	제전비 등
	중국공동체	1,200,000	의료비 등
	인도네시아공동체	1,200,000	제전비 등
	상호문화센터	8,4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33,437,000		
지원비	노동사목위원회	36,000,000	운영비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21,055,760	우편비, 출판비 등 지출 및 예치
지출 총액		190,492,760	

기부금영수증 안내*

2021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의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을 2022년 1월 11일에 일반우편으로 일괄 발송하였습니다. 우편물을 수령 하지 못하셨거나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이주사목위원회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 : 02-924-9970/1)



사랑하는 이주사목위원회 후원회원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2021년 한 해도 많은 이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총 안에 늘 건강하시고 기쁨과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